

##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1차 심사 총평

- 일시 : 2019년 10월 17일(목) ~ 2019년 10월 30일(수) \* 현장 심사 기준
- 장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암동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84명
- 심사회의 진행 및 결과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학술부문**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선정대상, 선정분야, 선정종수, 지원내용 등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학술부문** 사업 신청 내역 보고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계(종)
267	196	103	895	88	500	136	102	235	245	2,767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학술부문**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안내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학술부문** 1차 심사 및 선정(498종)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계(종)
51	34	19	159	17	90	25	19	42	42	498

붙임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학술부문** 1차 심사 총평. 끝.

#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1차 심사총평

## ○ 분야 : 총류

○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도서 심사는 도전과 가치, 창의성을 내세운 도서를 바탕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IT 기술 분야를 기반으로 일반인에서부터 전문가까지 학습과 응용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도서를 우선으로 심사하여 선정도서로 추천하였다.

○ 4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관련 지식과 창의성 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며,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따라 할 수 있는 학술도서 보급용으로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였다.

○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분류의 도서가 창작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인공지능, 웹 플랫폼, 모바일 분야 및 디자인, 영상 분야 등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시기적절하고 창의적인 학술 도서들이 이론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기술적인 분야와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도메인의 응용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한 점 또한 의미가 높다고 판단된다.

○ 상정도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AR, VR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시대적 지식의 요구와 독자들의 관심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흥미로운 학술서가 많았다. 도서 선정에 위해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면서 독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서의 내용과 깊이를 고려하였는지, 동일 분야의 타 서적과 비교할 때 충실성과 도전성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선정된 도서는 현재 정보통신분야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수많은 국내외 도서 중에서 현시대 기술발전의 이해와 지식탐구 필요한 기본지식을 다양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 및 번역된 도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 도서관, 저널리즘, 농업, 출판 등 다양한 종류의 책들 중에서 내용이 알차고 대중성이 있어 독서문화진흥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또 단순한 목록을 모은 자료집 성격의 책들도 여럿 보였다는 점이 아쉬웠다. 일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만 필요한 책들은 제외했다.

○ 1차 상정도서 중 가능하면 출판사 중복을 피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선정하였다.

## ○ 분야 : 철학·심리학·윤리학

○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을 좋은 책들이 많아서 선정하기 굉장히 힘들었다. 선정된 책

들은 다음의 기준에 맞게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저서는 학술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책을 선정하였고, 번역서는 처음 번역한 책이거나 꼭 번역되어야 하는 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금년에 좋은 책이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중에 2019년도 세종도서 학술부문의 서적을 소수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디만,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 간에 심도 높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야에서 좋은 책을 고르려 하였습니다.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서들도 선정하고 번역서도 적절한 비율로 선정하였습니다. 좋은 외서들의 소개로 학문의 기초가 충실해지도록 하였고 국내 학자들의 연구 성과도 북돋도록 하였습니다.

○ 올해 세종도서 학술부문 심사대상 저서 및 번역서의 수준이 매우 높아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소장학자들의 연구도서가 많아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심사의 기준은 번역서의 경우 학술적 가치가 있는 텍스트이고, 해당 전공자가 번역했는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저서의 경우 주제의 독창성과 학문적 파급력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도서 자체의 가독성과 구성, 디자인적인 틀을 잘 갖추고 있는 여러 심사 도서들 사이에서, 근래 문화적, 사상적인 시류와 잘 부합하며 이론적 깊이를 갖추면서도, 다양한 심리학 분야를 아우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익히 알려진 심리학 기본서들에 더해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에 맞춘 이론의 변형과 실제적 적용을 다룬 국내 도서와, 외서 중 현재 시의성과 새로운 심리적, 철학적 조망의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번역서를 함께 선정하였다.

○ 번역서의 경우 분야와 종류가 다양했으나 창작서의 비율이 적어 아쉬움이 있었다. 부득이하게 번역서의 비중을 높였다. 심리학의 경우 워낙 학문적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학문적 충실성, 도전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 ○ 분 야 : 종교

○ 동서양의 고대부터 근현대의 의미 있는 종교 관련 학술서적들이 심사대상으로 추천되었다. 각 서적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종교만의 세계를 넘어 인문학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충실하게 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번역서는 엄밀성과 학술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현대에 제기되는 독창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좋은 번역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인 듯하다. 번역서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다.

○ 상정도서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종교라는 문화현상이 얼마나 다양하게 접근 가능한지

를 잘 보여준다. 문헌연구, 역사연구, 사상연구 등 그 연구 방법론은 매우 다채롭다. 또한 주제적인 면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연구자들이 대체로 ‘한국적 정황’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종교현상을 치열하게 탐구한다는 사실이다. 본 사업을 거쳐 선정된 도서들을 통해 앞으로 독자들이 종교의 다양한 현상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번에 상정된 종교학 분야 도서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그동안 학계의 빈 공백으로 남아 있던 분야로서 희소가치를 지닌 연구, 둘째, 근현대 한국종교의 변화 및 흐름을 추적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1차 자료를 충실히 다루는 성실성을 보여주었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의미심장하였다.

## ○ 분 야 : 사회과학

○ 경영학은 이론에 기초한 실무 위주의 학문이다. 따라서 권위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의 실무 사례를 적절히 반영한 도서를 선정하는데 주력하였다. 상정된 도서 중에는 의미 있는 이론과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저술들이 상당히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도서들이 향후 학자와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상정도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호텔 및 외식, 창업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경영분야에서는 실무적 분야에서 접근하는 도서들이 눈에 띄었다. 독자층을 고려하여 실무적 측면과 함께,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학문영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제시된 심사기준에 입각하여 심사위원간의 합의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경영학 제반 분야에 대해 고르게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영서라는 점에 입각하여 도서의 질적 수준과 독창성, 실무적인 내용, 대중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빅데이터, AI 및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의 시류를 반영하듯 이 분야의 학술도서가 많이 제출되었다. 모두가 훌륭한 저작들인데 일부만 선정되어야 하는 제약이 안타깝게 다가왔다. 가능한 과급력이 큰 서적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고, 심사하면서 훌륭한 서적을 발견한 즐거움에 감사한다.

○ 상정된 도서들을 검토한 결과, 최근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분석 등과 관련된 주제들과 경제, 무역, 통계와 관련된 이론 및 실무관련 주제들로서 독창성과 참신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이슈중심의 저작물과 분야별 이론 및 실무중심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시의성, 독창성, 참신성, 다양성 등의 관점에서 학문적 성취도, 새로운 분야의 개척 의지, 이론적 체계성 및 실용성 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다.

○ 이번에 심사한 사회과학(경제)도서 중에는 단순히 서구의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려는 실천적인 학문적 열정에서 탄생한 책들이 많았다. 그러한 저자 고유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녹아있는 책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 상정된 도서들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전통적 성향의 것들도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도서들도 상당하였다. 법학의 세계가 협소하지 않음을 이러한 도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심사의 주안점은 학술적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일반 독자에게도 전문적 지식이 거부감 없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두었다.

○ 상정도서들은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 및 비판적 사유와 고찰의 내용부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여러 사회 현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고 참신하며 시의적절한 도서들이 많았다. 이러한 도서에 대하여 주제에 대한 충실성과 새로운 담론 제시의 도전성 그리고 학문적·이론적 참신성을 근간으로 하여 심사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공정한 심사를 상호 합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모든 상정도서와 주제는 일관된 주제의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용의 우수성을 통하여 기존 연구에 대한 발전적인 내용과 전개를 크게 도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주제 관련 후속연구에서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관련 주제 및 도서에 대하여 더 큰 관심과 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국민 독서문화 향상 및 지식기반사회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 심사 대상 도서들 가운데 행정학·정책학 관련 책들은 교과서적 성격의 책이 많았다. 정치학 관련 책들 가운데에도 공동의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저자들이 함께 저술한 편저가 많았다. 이런 형식의 책들이 그 자체로 학술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저자 깊이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천착하여 집필한 책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많았다. 기준에 다뤄진 적 없는 참신한 주제를 완성도 높게 다룬 책들을 주로 선정하였다.

○ 사회과학 정치/행정 분야에서 도서선정의 기준을 첫째, 전문학술서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저서, 둘째, 연구주제의 일관성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노력과 고뇌 등 두 가지로 정하면서, 이에 학술도서를 심사하였다. 보편적으로 정치영역에서는 국내 외적으로 연구가치가 큰 주제들을 연구한 도서를 선정하였으며, 행정영역(정책포함)에서는 정책이나 지방자치, 다문화, 정책철학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특히 정치/행정영역은 연구주제가 매우 다양하고 폭 넓기 때문에 연구자의 연구노력과 연구내용의 심층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학술적으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 올해 상정된 도서들 역시 선정에 곤란을 느낄 정도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다. 이번 선

정에서는 연구의 독창성과 학술성, 시의성을 중심으로 고려했다. 연구자들의 노력이 잘 투영된 저술들이 출판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외교와 남북관계 분야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시각의 저술들이 많이 있었다. 심사선정 도서는 외교와 남북관계 분야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연구와 대중적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필자들의 열의와 노력이 대중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최근 들어 외서의 번역이 빈번해지고 있는 와중에 학술적으로 주목할 만한 저작들도 눈에 띄고 있다. 또한 국내저작 중에서 여러 저자들이 힘을 모아 출판한 결과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출판물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들이 등장하면서 심사기준도 점차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복지, 페미니즘, 다문화 분야에 관련한 좋은 저작들이 많았다. 새롭고 풍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은 저작에도 높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책 전체를 관통하는 뚜렷한 주제를 가진 저술을 높이 평가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치밀한 작업성과를 제시한 저술도 발견할 수 있었다.

○ 전문연구자들의 연구 역량과 학문적 성찰이 농축된 다양한 사회과학 도서들이 출판되었다. 특히 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시대적 도전에 부응하고자 노인문제, 사회복지분야의 저작들이 다수 산출된 점이 눈에 띄었다. 1차 심사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저자의 학문적 성취와 양서 보급을 위한 출판사의 노력이 적절히 어우러진 출판물들을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 사회/복지/언론분야의 심사도서를 검토하여 교재-연구보고서-편저-대중교양서 및 팸플릿을 제외하였고, 학술부문 선정기준인 충실성-도전성-참신성을 바탕으로 분과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음.

○ 심사 대상이 된 저술들은 사회복지, 여성학, 4차 산업혁명, 국가폭력과 인권, 공동체적 가치 등 최근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대다수가 학문적·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저술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주제로 잡은 사회현상에 대해 이론적 고찰들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논쟁이 활발한 영역들에 대한 고찰도 적절히 소개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적 제언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저술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주제에서 학문적·정책적 발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며, 또 그러한 취지로 진행되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화두를 다룬 연구 서적이 많았고, 역사와 인문 분야에서 시의성 있는 연구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일반적인 담론을 재생산하는 개괄 중심의 서술이 이뤄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독창적인 주제와 시각이 더 필요해 보인다.

다. 불평등, 불공정, 세대-젠더 갈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기대해본다.

○ 이번 심사대상의 도서들의 주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제 강점기, 평화, 행복,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시대의 한인 등에 대한 것이 특히 눈에 돋보였다. 이와 같은 주제의 책들은 깊이도 만만치 않은 것들이었다. 한편 연구자들이 집단적으로 공동 작업을 하여 성과를 낸 것도 많았다. 공동 작업은 개인 작업에 비해 자신의 전문분야에만 집중하여 글을 쓰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출간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연구공동체가 강하게 형성됨으로서 향후에도 좋은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출판 산업의 진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의미가 깊다하겠다.

○ 올해에도 사상, 이론, 기술변동, 세대문제, 인구, 생태계 문제들 다양한 각도에서 참신하게 분석하는 많은 사회과학 서적들이 출판되었다. 이론적, 역사적으로 심도 있는 단독저술도 눈에 띄어 사회과학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만 10명 이상의 많은 저자들이 일관된 프레임과 문제의식을 결집한 가운데 출판이 이뤄진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심사의 대상이 되는 도서 가운데는 민속을 비롯하여 콘텐츠, 내설널리즘, 각종 자료집 등 의미 있는 저술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속에서 특정 학문분야-이론테면 민요-에 집중된 경향도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뛰어넘는 참신한 시각과 도전을 보여주거나 연구의 깊이를 더한 도서들이 있어 이러한 점을 평가의 중요한 준거로 삼았다. 학술적 성취가 잘 드러나는 도서를 엄정하게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학문영역의 특징 때문인지 깊이 천착한 학술서로서의 면모보다는 교양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저술이 많았고, 자료를 소개하는 경우에 그친 경우도 많아 아쉬운 점이 많다. 그렇지만 자료를 기반으로 삼아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문화일반의 여러 영역에서 연구의 다양성과 학문적 깊이가 있는 도서가 산출되었다는 점, 이로써 독서 문화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여겨진다.

○ 사회과학 민속/문화일반 저술들이 학술적 위상에 비해 미비했다. 한 해를 갈무리하는 연구저작들이란 점에서 그렇다. 번역서도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고전번역이 적어 아쉬웠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장르별 안배, 분야별 개척, 학술적 성취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다. 기초학문에 대한 무관심 혹은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를 어떻게 타개해나갈지, 세종도서 심사의 격과 지원의 폭을 획기적으로 늘려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전반적으로 학술, 교양서적보다는 교재 형태의 서적이 많은 것이 흠이다. 이는 출판계의 사정이 조악한 데도 원인이 있으나 우리의 독서 문화가 저변에 정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심사과정에서 타 위원들과 함께 교재형식의 저술을 일차적으로 배제하였다. 출판의 경향으로 볼 때, 우수 번역서가 권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술적 성격의 번역서가 많이 신청되기 바란다. 이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계에서 근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은 서적을 선정하였다.

○ 이번 교육학 학술 부문 심사에서는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해당 분야의 주제를 충실히 설명하고, 참신한 담론을 제시하여 학생, 일반 성인, 교육 전문가 모두에게 필요한 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 이번 세종도서 학술부문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충실성, 도전성, 참신성 3가지였다. 심사 전에 먼저 학습교재류, 학회지, 정기간행물을 제외하였고, 이후 위의 3가지 기준과 시의성, 독창성, 다양성, 완결성을 바탕으로 심사하였다.

○ 사회과학 분야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주제의 신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교육학의 주제들이 망라된 가운데,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유익할 도서를 선별하는 작업은 깊은 고심과 선정의 어려움을 동반하였다. 그 가운데 다양한 독자들이 찾을 수 있는 도서로 독창성과 전문성이 돋보이는 내용의 저서들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육학 전반의 주제들이 사회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밀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히 눈에 띄었다.

○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의 도서가 많다 보니 학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도서의 선정이 어려웠다. 특히 교육현장 사례를 담고 있는 도서가 많아진 것이 요즘의 경향인 듯하다. 그럼에도 학술적으로 또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론과 실제 중심의 도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상정 도서들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교육을 대비하여 그동안의 학교 교육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혁신 교육, 작은 학교, 학교 자율 경영 등과 관련된 도서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유아 발달 및 유아 미술교육과 관련된 도서들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일반인들의 아동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 분 야 : 순수과학

○ 올해 순수과학 분야 후보 도서 중에는 기후변화와 현대물리학, 에너지, 신약 개발 등 흥미로운 최신 과학 이슈들과 함께 기하, 과학철학 등 양질의 기초과학 분야 도서가 함께 출품되어 우리나라 출판문화가 발전하고 수준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선정도서 뿐 아니라 모든 후보도서가 읽어볼 가치가 있는 도서라 생각된다. 그 중 심사위원이 논의를 거쳐 어렵게 몇 권을 추천하였다. 많은 분들이 즐겨 읽을 수 있길 희망한다.

○ 순수과학 분야의 저서이지만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집필된 많은 도서가 선정 후보로 제출되었음. 우수한 많은 도서 중에서 새로운 접근, 참신한 주제를 창의적으로 집필한 도서가

다수 선정되었음. 또한 어려운 내용이지만 많은 일반의 비전공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이 설명한 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올해 순수과학 분야에는 다양한 주제의 서적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수과학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술된 서적들과 최근 이슈인 기후, 에너지와 관련된 서적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도서의 창의성과 도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하였습니다.

## ○ 분 야 : 기술과학

○ 상정도서들의 학술적 가치, 내용의 우수성 및 충실성,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였다. 기술과학 분야 중 약학 및 의료 윤리 분야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이 돋보이며 관련 학술분야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상정도서들을 대상으로 학술정보의 과학적 가치와 우수성, 정확성, 충실성, 도전성, 참신성, 가독성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심사위원간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였다. 아직은 전반적으로 번역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원서 또한 그에 못지않게 질적으로 우수한 서적이 많아서 우리 기술과학 분야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 현대인의 삶에서 건강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에 초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건강관련 도서,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에게 최신의 경향과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고자 고심하였다. 다소 주관적이거나 시의성, 참신성, 충실성을 갖추지 못한 도서는 부득이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최신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가 집필, 번역되어 무엇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전에 독자로서 반갑다. 향후에도 국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우수한 도서가 많이 집필되고 보급되기를 기대한다.

○ 상정 도서의 약 절반 정도가 의학 분야로 전공이 비교적 임상과목에 치우친다. 학회나, 연구회 차원에서 대단위로 기획한 우수한 학술서나 전공분야 다수의 저자가 공동 집필 또는 번역한 책이 주종을 이루어 학술성을 인정할 만하였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번역서 비중이 높았다.

○ 의학·치의학 분야 각 전공분야 저서 중에서 각 분야별로 학술서로 가치가 높고, 시대상을 반영하여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으며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제시한 도서를 선정하였다. 각 도서들이 각 분야에서 일관성 있는 주제에 대한 설명과 전공자 뿐 만 아니라 일반인 및 각 분야의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

다. 의학·치의학 분야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입상의 뿐 만 아니라 환자의 관점에서 이해도를 이끌어 내려는 도서들을 선정하였다.

○ 의/치의학 계열 학술도서의 특성 상 학문 전공자에 국한된 범위의 전문가 대상의 내용을 다룬 도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도서 내용의 충실성과 도전성, 참신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도서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제시한 내용의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의료서비스 관점의 발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도서 선정은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용하는 전문성의 다양성과 이로 인해 혜택을 볼 대상 환자 혹은 일반인의 범위를 고려하였다. 특히 일반인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는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환자나 그 가족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는 도서의 경우 가능한 많은 독자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의 향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선정도서의 추천은 상정도서를 대상으로 학술적 가치와 시의성, 독창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참신한 주제와 도전성이 돋보이는 도서를 중심으로, 심사위원간 협의를 통해 공정한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소비자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지식을 다룬 저술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술과학 분야 도서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도서의 선정은 독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학술적 내용을 쉽게 공감할 수 있게 저술한 도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 건강관련 식품에 관한 도서가 많이 발행되는 경향이다. 특히 노년인구 증가 현실을 반영 하듯이 노인 건강관련 도서가 증가하였다. 예년에 비하여 조리 관련 도서 발간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경제학 등 일반인들이 생소한 분야의 도서도 발행되었다.

○ 상정된 많은 훌륭한 도서들을 검토하여, 이 중에서 다시 수작을 골라내는 일은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유용성과 창의성을 위주로, 관련 분야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이 묵묵히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시대변화에 맞게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들을 저자가 독자들에게 얼마나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와 관련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잘 기술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기술발전이 빨라지는 공학 분야의 지식전달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독자의 이해도와 흥미가 높은 저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이론서보다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게 포함된 학술서, 창의성이 뛰어난 저서를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유행하는 기술의 겉핥기식 나열보다는 전문성이 충분하지만 이해도가 높은 저서들이 선정되었다.

○ 건축/토목/환경 분야의 도서를 검토한 결과, 전문성이라는 기술 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과 문화 속에서의 존재감(정체성), 풍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경험, 기술의 규범화, 종교적 철학적 주제와의 통섭을 통한 다양한 접근 등은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심미적 가치와 실용적인 체득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일부 역서 등은 장시간에 걸쳐 난산 끝에 집대성한 학술적가치가 높은 도서를 접하여 볼 때 한국 도서출판문화를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됩니다.

○ 학문의 이해 및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학술도서 선정에서, 건축/환경/토목 분야의 기술도서는 건축과 토목, 환경과 도시공학, 농업과 생태학을 망라하는 넓은 범위의 도서가 지원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범위의 도서를 적절하게 선정하고자 하였다. 건축, 환경, 토목, 도시공학, 농업과 생태의 각 분야들에서 최신연구동향을 반영하고,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으로 도서를 선정하였다. 각 분야별 학과에서 교재로 활용될 것 같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도서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러한 도서들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된 도서 대부분은 새로운 학문적 이론을 포함하고 있고, 구성이 논리적이고,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참고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번역서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외국고전에 대한 번역서를 우수하고, 가치 있는 지식전달의 관점에서 선정하였다.

○ 최근 사회적 이슈(4차 산업혁명, 라돈, 원자력 발전 등)와 관련된 전문 서적과 저자의 연구 분야를 집대성한 전공 서적이 다수 출판되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 비전문가도 쉽게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문적 깊이를 조절하고 대신 전문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목차를 구성한 것이 대체로 관찰됨.

○ 내용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독특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룬 책들을 비중 있게 심사했으며, 특히 다양한 이종 간의 학문 주제를 서술한 책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 ○ 분 야 : 예술

○ 상정도서들은 예술 분야의 학술도서로서 연구 분야의 전문성과 기존학문업적을 넘어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만한 도전적인 참신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학술적 깊이와 문제의식, 독창적 연구접근과 내용으로 차별화된 학술성고가 돋보이는 도서와 학술서적으로 분류하기는 무리가 있는(단순 사전적 서술, 혹은 문학이나 교양서적으로 분류되어야 함)도서들로 명확히 양분되었다.

○ 올해 심사대상 도서는 예술과 인문사회의 융합성격을 지니면서 대중에게 지식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참신한 형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세부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테마의 학술적 설명이 일반인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된다.

○ 전체적으로 학술 연구에 기반을 둔 도서가 많지는 않았으나 일부 도서는 연구의 깊이와 폭에 있어서 근래에 보기 드문 우수 도서가 출판되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는지 실용적인 도서가 많이 출판되었고 학술적 성격의 도서도 실용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편집되어 있는 점 등은 아쉬웠다.

○ 예술 분야의 경우 매우 특정한 지역적, 연구에서부터 교차적 연구, 비교 연구까지 출판의 지형을 볼 수 있다. SNS 시대, 이미지와 텍스트를 다수 포함하는 종이 출판의 의미란 어떤 것인가를 새삼스레 다시 생각하게 하는 도서도 있었다. 그러나 학문, 예술적 연구의 독창성과 심도, 그리고 가독성이 결합된 학술도서를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힘든 작업이다.

○ 예술분야 중 스포츠분야는 학문적으로 훌륭한 서적들이 있었지만, 일부 한정된 영역(스포츠교육학, 스포츠심리학, 골프 등)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서적들이 출판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 이번 심사 도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심사의 재미를 더했다. 한 권의 학술서가 나오기까지 저자의 각고의 노력은 물론 출판사의 노동이 함께 한 그 현장의 지문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좋은 저서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학계에 도움이 될 만한 번역서들이 많았다는 것과, 통시적이지만 깊이 있는 서술이 진행된 연구서들, 그리고 철학적 사유로 예술을 관조하는 저서들이 다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술서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특정 분야의 출판사가 편중돼 있어서 좋은 저서임에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제외된 것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술과 스포츠 등의 장르에 있어서도 특히 연극과 영상에 쏠려 있는 저작물들의 불균형이 심해서 연극과 영상 외의 연구자들에게도 관심을 독려할 필요가 느껴진다.

## ○ 분 야 : 언어

○ 전반적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중국어와 일본어 분야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그 이외의 언어 분야나 일반언어학 관련 분야의 연구는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 교육 분야와 문법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특정한 분야의 내용을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정리하였거나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참신한 시도를 하였다는 판단이 드는 도서들을 선정하였다.

○ 후보 도서의 영역을 보면 일반언어학, 국어학, 영어학, 중국어학, 일본어학 등과 관련된 저서와 역서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충실성, 도전성, 참신성 등의 학술부문 선정 기준에 의거, 각 영역별, 출판사별, 저서와 번역서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다.

○ 언어 분과에 상정된 도서들은 비교적 다양한 세부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전문성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다양한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 전문성이 탁월하여서 학문적으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와 독자층을 넓게 확보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 ○ 분 야 : 문학

○ 학술서의 연구 영역이 넓어졌다는 인상을 받아 반가웠다. 그런데 심사 기준상 좀 의아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첫째는 출판사에서 응모를 할 때 번역서를 연구서로 제출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분야를 잘못 선택한 경우가 몇 편 있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책의 내용은 좋지만 문학 분야로 뽑기에는 모순이 있어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점이다.

○ 문학 중 고전 분야의 도서들은 문헌학적, 미학적, 주제론적 접근 등의 전통적 방법론과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공존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과 서양의 고전 문학이 지닌 인문학적 지평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안목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간 주변부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던 문헌이나 자료에 대한 연구물들이 있어서 출판계와 학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한국문학을 새로운 주제의식으로 조망하는 연구서, 저자의 문제의식이 충실하게 표현된 연구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작가연구, 물·시간·법·추 등의 주제론적 연구, 지역연구, 디아스포라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서들은 향후 한국근현대문학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상정도서는 다양한 주제와 관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심사를 통해 연구자들의 치열한 노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참신성과 학술적 전문성을 중심으로 주제의식을 일관되게 제시한 주제 집중도와 기존 학문업적을 넘어서 새로운 담론이나 방법론 등을 제시한 기준을 심사 과정에 적용하였다. 기존의 논의를 수렴하는 동시에 관점을 심화하거나 새로운 담론이나 시각, 방법론을 보여준 도서들을 위원 간 상호토론과 협의를 거쳐 1차 회의의 도서로 선정하였다. 이 도서들은 사유의 다양성과 독자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 심사 기준인 충실성, 도전성, 참신성에 부합하는 다수의 도서들이 눈에 띈었다. 심사에 있어 새로운 문제의식을 포착, 이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저술들에 주목하였다. 몇몇 작품들은 현재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새롭고 다양한 문제의식에 주목한 점이 흥미로웠으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깊이에 있어 아쉬움이 있어 최종 선정 대상에 오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 상정된 도서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학계가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관심 분야가 다양했으며 논의의 과정과 절차가 심도 있었다. 주제와 방법, 대상 면에서 주목할 만한 면모들이 많았다.

○ 학술도서 심사에 있어서 독창성과 충실성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한국문학, 서양문학, 동양문학을 균형 있게 선정하는데도 신경을 썼다. 학문적인 수준에 있어 기존의 학문수준을 넘어서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충분히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저서를 선정했으며 이 도서들이 지식사회의 기반인 기초학문연구의 소중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는다.

○ 심사도서를 대상으로 학문발전을 이루어 내는 내용의 충실성과 도전성, 출판기회의 참신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한 작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작품에서 시대적 변혁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까지 학술 분야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고 그 기반도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 ○ 분 야 : 역사·지리·관광

○ 올해 한국사 분야 신청도서는 시대별로 근현대사 분야의 비중이 많았다. 아마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시의성이 작용한 듯하다. 하지만 다양하고 의미 있는 분야와 주제를 다룬 연구서들이 있어서 선정하는 데 즐거움을 주었다. 학술 서적을 출판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학술 서적 출판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

○ 고고학에서부터 한국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다양한 주제의 도서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특히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3.1운동 관련 도서가 많았다. 하지만 학술도서 중에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나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지 않은 책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앞으로 학술부문 지원 도서 선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 상정도서 중에는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거나 대중용으로 쉽게 풀어 쓴 저작들이 많았다. 특히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정리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에 입각해서 새롭게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재평가하는 것들을 주목할 만하다. 좋은 저작이 많았지만, 이점에 역점을 두고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 2019년 심사대상 도서들 가운데 주목을 끈 도서들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참신한 지적 발견과 미시적·거시적 안목을 제시함으로써 역사·문헌·인문 분야에서 한국학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책들이다. 학술적 영감과 성취 면에서 해외번역서들의 약진이 돋보이는 한편, 국내 연구서들은 디테일을 발견하고 고증하는 수준 높은 문헌들이 눈에 띈다. 향후 국내 연구도 미시성과 거시성을 발견하는 가운데, 세계학계에 새로운 관점과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는 지적 성취의 측면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였다.

○ 상정도서들은 대부분 국내외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도서 선정에 있어 시의성, 다양성 보다는 내용 구성의 충실성과 도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는 번역서들이 상대적으로 국내서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아쉽다. 앞으로 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노력이 들어간 연구서들이 많이 발간되길 바라며, 이러한 연구 환경 조성에 본 사업이 기여하길 기대한다.

○ 상정도서 중에는 기초 학술 연구에 충실한 학술연구서,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도서를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학술적 독창성과 저자의 연구역량을 검토하였고, 국내출판 문화산업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저작을 선정하였다.

○ 올해 상정된 도서들 중 고고학에서부터 현대 관광에 이르기까지 전문 학술서는 물론 대중적인 인기를 끌 도서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정됐다. 이 가운데 학술적 가치와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2차 심사 총평

- 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 현장 심사 기준
- 장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암동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10명
- 심사회의 진행 및 결과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학술부문**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선정대상, 선정분야, 선정종수, 지원내용 등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학술부문** 사업 1차 심사 선정 내역 보고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계(종)
51	34	19	159	17	90	25	19	42	42	498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학술부문**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안내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학술부문** 2차 심사 및 선정(400종)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계(종)
38	28	15	130	13	72	20	15	34	35	400

붙임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학술부문** 2차 심사 총평. 끝.

##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2차 심사 총평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은 10개 분과에 걸쳐 총 2,767종이 접수되었다. 올해는 세종도서 사업 운영에 있어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선정 종수가 320종에서 400종으로 확대된 것이 가장 고무적이라 하겠다. 올해 세종도서 학술부문의 경쟁률은 약 7:1 수준이었으며, 지난 2개월 동안 84명의 심사위원이 세종도서 사업목적과 심사기준에 따라, 뛰어난 학술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전체 세종도서 선정사업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도서 중에서 학술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학술성은 해당 분야 전공자들이 잘 정립된 최신 학술지견을 습득할 수 있는 도서인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한 분야 안에서도 주제별 학술성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워 학술성에 시의성을 더하여 반영하였다. 즉 시대변화를 공유하거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제들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일부 학술서는 학회나 연구회 또는 복수 전문가 저자들이 공동집필하여 출간하였는데 이는 학술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학술서는 기획부터 자료 수집, 집필, 수정 보완, 편집, 출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문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여 완성된다. 단행본 학술서는 관련 주제의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여 원저 논문으로 출간하는 장기간의 연구력이 상당히 뒷받침해야 완성도가 높은 저서를 낼 수 있다. 국내의 낮은 학술서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술서가 꾸준히 발간되는 사실은 상업성보다 학술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학술활동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향후 같은 주제의 연구자들이 연구 집단으로 규모를 키워 연구효율을 높이고 공동으로 저술하는 우수한 학술서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한된 예산 제약으로 이번 심사에서 우수한 학술서가 많이 선정되지 않은 데에 대하여 모든 심사위원단이 안타까운 심정을 느낀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자들의 학술서 발간이 활발하게 지속할 것이며, 세종도서 선정을 통한 지원이 국내 창의적 학술서 발간을 통한 학술활동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 총류 ]

총류 분과는 도서관, 저널리즘, 농업, 출판 분야 및 4차 산업혁명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그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IT기술 분야의 도서를 심사하였다. 시대적 지식의 요구와 독자들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웹 플랫폼, 모바일 분야, 디자인, 영상 분야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흥미로운 도서가 많았다.

일반인에서부터 전문가까지 학습과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깊이를 고려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 철학/심리학/윤리학 ]

올해 세종도서 선정 작업은 좋은 책이 많아 어려운 일이었다.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치며 심사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에 따라 선정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심사기준은 무엇보다 학술적 가치가 큰 책을 고르고자 하였고,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능한 한 국내 연구자와 국내 소장학자들의 연구를 북돋고자 하였고, 미래 학문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외서들도 적절한 비율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학문 분야의 특성상, 철학/심리학/윤리학 분과는 그 학문성과를 책으로 출판하기까지 들이는 시간이 다른 어떤 분과보다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선정 비중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학술서를 세종도서로 선정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아쉽게도 선정하지 못한 학술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 [ 종교 ]

여러 종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심과 시각을 지닌 연구자들의 노작을 심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에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종교 분과 100여 편의 서적들은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각 연구자들의 학문적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난 역작들이었다. 종교별로 기독교와 불교를 다룬 서적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외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지 않았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최대한 종교별 안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문적 우수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비록 이번 심사에서 제외되었지만 선정된 도서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저술들이 많았다. 한정된 선정종수로 인하여 부득이 선정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 [ 사회과학 ]

사회과학 분과에서는 총 895종이 접수되었으며, 선정기준에 입각하여 최종적으로 130종을 선정하였다. 최근 사회현상을 다룬 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학술적, 실무적 측면의 도서들이 접수되었다. 학문적으로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도서와 실용적 차원에서의 독자층을 고려한 도서를 선정하였다.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학문영역과 실무영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사업이 국민들의 독서문화 향상과 지식기반 사회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 순수과학 ]

올해 세종도서 학술부문 순수과학 분과에는 총 88종의 도서가 접수되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신약개발과 유전체 의학 등 시의성 있는 흥미로운 주제들과 함께 수학에서의 무한 개념과 기하, 물리학의 시간과 우주, 생태계의 화학물질 대사와 순환, 인류 진화

심리학 등 순수과학의 기초 개념들이 고르게 다루어졌다. 또한, 국내 저자들이 직접 쓴 도서와 훌륭하게 번역된 양질의 해외 번역서가 균형 있게 출판되어 우리 출판계가 발전하고 수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주제의 후보 도서들 중 선정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창의성과 완결성이 높고 만듦새가 우수한 순수과학 분과 도서 13종을 선정하였다. 전공자 뿐 아니라 과학 교양을 쌓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읽을 수 있길 바란다.

### [ 기술과학 ]

기술과학 분과는 학술성과 시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번역서를 포함하여 우수한 책이 다수 출판되어 다양한 분야별로 선정에서 고심하기도 하였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는 주제를 우선 선정하였다. 학술 도서의 수준이 우리나라 학술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학술서가 많아서 매우 고무적이다. 도서를 집필하는 학자들은 우수도서 선정이나 학술상을 목표로 책을 출간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세종도서 선정사업이 우수 학술서 출간에 계속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예술 ]

사진, 영화, 미술, 건축, 춤, 연극, 음악 등 특수, 일반, 보편적 예술사, 문화사 기술로부터 게임 등 동시대 예술 형식에 대한 미학, 정치적 분석의 다변화가 인상적이다. 그리고 뛰어난 번역서, 대중 친화적 가독성을 갖춘 학술서 까지 예술 분과 서적들의 전문화도 주목할 만하다. 예술 분과의 독창성과 심도 그리고 가독성이 결합된 도서들이 가까운 미래에 더욱 많이 생산될 징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듯하다.

### [ 언어 ]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언어분과에는 총 102종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15종이 선정되었다. 접수된 도서를 보면 주로 일반언어학, 영어학, 중국어학, 일본어학 등과 관련된 저서와 역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이에 충실성, 도전성, 참신성 등의 학술부문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각 영역별, 출판사별, 저서와 번역서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하였다. 언어분과 접수종수는 비록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내용의 면면을 보면 고대문헌에 대한 해제적 연구, 고대문헌에 대한 현대적 방법론의 적용, 언어이론의 실증적 연구 및 적용, 표준적인 문법 연구 등 전통적인 언어학 연구, 해외 저명학자의 연구실적 번역 소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었다.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업이 학문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분과의 연구를 지원하고 도서의 출판과 보급을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 문학 ]

기존의 연구를 뛰어넘는 독창성과 구체적인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전개한 충실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고전문학 연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연구의 폭이 넓어졌다. 문헌학적이며 주제론적인 전통적 방법론의 연구서 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연구도 있었다. 근현대문학에서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보여준 연구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개별 작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 뿐 아니라 시대적 맥락과 연관된 연구가 있었고 이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이론을 작품에 적용하여 독창적 해석을 내놓은 연구 등 근현대문학연구가 풍요로워졌다. 특히 문학이론의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실제 작품 분석에 심도 있게 적용한 독창적인 연구서들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2019년 문학 분과 선정도서들이 기초학문연구 발전의 소중한 토대가 되리라고 믿는다.

## [ 역사/지리/관광 ]

역사, 지리, 관광의 분과에서는 연구자들의 새로운 자료발굴과 관점에 입각해서 다양한 성과들이 풍성하게 쏟아졌다. 한국뿐 아니라 동서양의 전 시대에 걸쳐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를 미시적·거시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많았으며, 전문성을 띠면서도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성격의 글도 있었다.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관련 연구들도 눈에 띈다. 이번 심사에서는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개발, 구성의 충실성과 도전성, 그리고 시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어려운 연구 환경 속에서도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우르면서 학문의 새로운 지평선을 확대해나가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위와 같이 선정함.

2019년 11월 11일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붙임.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2차 심사 최종 선정도서 목록 1부. 끝.

##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2차 심사 선정(400종) 목록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1	총류	3D 프린팅을 활용한 시제작품 제작 마스터 실무	도서출판 동화기술	최년식	N	
2	총류	4차 산업혁명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주식회사 제이펍	박인근, 홍지후, 강남규, 김성호, 정구범	N	
3	총류	Firebase로 안드로이드 SNS 앱 만들기 : 당신도 인스타그램 앱을 만들 수 있다	비제이퍼블릭	하울	N	
4	총류	Node.js 교과서	(주)도서출판 길벗	조현영	N	
5	총류	OpenCV 4로 배우는 컴퓨터 비전과 머신 러닝	(주)도서출판 길벗	황선규	N	
6	총류	OpenCV를 이용한 디지털 영상처리	인피니티박스	천인국	N	
7	총류	OpenGL ES를 이용한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 입문	홍릉과학출판사	한정현	N	
8	총류	게임 디자인을 위한 기초 이론 : 깊이 있는 게임 디자인을 위한 고민의 시작	에이콘출판(주)	남기덕	N	
9	총류	게임으로 익히는 코딩 알고리즘	한빛미디어 (주)	김영기	N	
10	총류	나의 첫 머신러닝/딥러닝 : 파이썬으로 구현해보는 필수 머신러닝/딥러닝 알고리즘	위키아카데미	허민석	N	
11	총류	농사직설 : 풍토가 다르면 농법도 다르다	아카넷	정초, 변효문	Y	이병희
12	총류	더 괜찮은 QA가 되기 위한 프랙티컬 테스트 자동화	주식회사 프리렉	정상미	N	
13	총류	디지털 저널리즘 연구 토크아보기	(사)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Pablo J. Boczkowski, C. W. Anderson	Y	김균수
14	총류	모바일 UI/UX 디자인 실무	한빛아카데미(주)	이영주	N	
15	총류	백제 건축, 치석과 결구를 보다	서경문화사	정훈진, 심상욱, 이현숙, 임종태, 조원창	N	
16	총류	비상구는 이쪽이다	주식회사 아시아	백승연 외 21인	N	
17	총류	사랑, 중세에서 종교개혁기까지	도서출판 산처럼	이종숙 외 11인	N	
18	총류	소문난 명강의 : 레트로의 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 에센스(1-2)	한빛미디어 (주)	이제민	N	
19	총류	손에 잡히는 판다스	비제이퍼블릭	문용준	N	
20	총류	쉽고 편하게 메타분석 : 초보자는 쉽게 경험자는 다양하게	주)에스앤씨퍼블리싱	김지형	N	
21	총류	실용적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생능출판사	김원 외 9인	N	
22	총류	실전 리액트 프로그래밍	인사이트	이재승	N	
23	총류	알고리즘	(주)도서출판 길벗	로버트 세지윅, 케빈 웨인	Y	권오인
24	총류	유니티 VR게임 만들기	디지털박스	최명균, 강안나, 정충민	N	
25	총류	이론과 실전으로 배우는 게임 시나리오	한빛미디어 (주)	이진희	N	
26	총류	인공지능, 보안을 배우다 : 프로젝트로 익히는 정보 보안과 머신러닝	비제이퍼블릭	서준석	N	
27	총류	임원경제지 선택지	풍석문화재단	서유구	Y	임원경제연구소
28	총류	자바웹을 다루는 기술	(주)도서출판 길벗	이병승	N	
29	총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퀵스타트	루비페이퍼	채규태, 표선영	N	
30	총류	제품 디자인을 위한 Rhino 3D 6 Reality	디지털박스	이행중	N	
31	총류	즐거운 메이커 놀이 활동 : 언플러그드	영진닷컴	홍지연	N	
32	총류	지브러시 베이직 클래스	루비페이퍼	이동후	N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33	총류	텐서플로로 배우는 딥러닝	영진닷컴	솔라리스	N	
34	총류	파이썬으로 만드는 OpenCV 프로젝트 : 간단한 영상 입출력부터 머신러닝까지	인사이트	이세우	N	
35	총류	파이썬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머신 러닝	에이콘출판(주)	강봉주	N	
36	총류	픽스호크 드론의 정석	(주)성안당	공현철, 한기남, 김지연, 서동훈	N	
37	총류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개발	한빛미디어 (주)	니틴 가워 외 5인	Y	임지순, 이대승
38	총류	홀로그램 미래를 그리다 : MS Garage 최고 디자이너가 들려주는 홀로그램의 모든 것	에이콘출판(주)	마이크 펠	Y	송지연
39	철학/심리학/윤리학	감성과학	(주)범문에듀케이션	이배환	N	
40	철학/심리학/윤리학	거짓말쟁이 역설에 관한 탐구	아카넷	송하석	N	
41	철학/심리학/윤리학	고독의 심리학(1) : 고독의 다양한 얼굴들	(주)학지사	Robert J. Coplan 외 28인	Y	이동형 외 10인
42	철학/심리학/윤리학	근대 도덕철학의 역사(1-3)	(주)나남	제롬 B. 슈니윈드	Y	김성호
43	철학/심리학/윤리학	단재 신채호 : 조선의 아, 비아와 마주서다	도서출판 문사철	박정심	N	
44	철학/심리학/윤리학	도덕형이상학 정초·실천이성비판	(주)도서출판 한길사	임마누엘 칸트	Y	김석수, 김중국
45	철학/심리학/윤리학	동아시아 예술과 미학의 여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신정근	N	
46	철학/심리학/윤리학	딜레마의 형이상학	세창출판사	박제철	N	
47	철학/심리학/윤리학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 하나의 서론	(주)한국응용연구원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Y	이부영, 이광자
48	철학/심리학/윤리학	사물과 공간	아카넷	에드문트 후설	Y	김태희
49	철학/심리학/윤리학	사서장도 : 은괘총요(1-3)	세창출판사	정복심	Y	전병욱
50	철학/심리학/윤리학	사회계약론적 윤리학과 합리적 선택	철학과현실사	박정순	N	
51	철학/심리학/윤리학	신경미학	북코리아 출판사	마르틴 스킵프 외 20인	Y	강미정, 민철홍
52	철학/심리학/윤리학	심경발휘	도서출판 통과서	정구	Y	이창일
53	철학/심리학/윤리학	욕망의 윤리 : 라캉 정신분석과 예술, 정치, 철학	(주)도서출판 한길사	양석원	N	
54	철학/심리학/윤리학	유죄 오판 : 심리학의 교훈	(주)학지사	Brian L. Cutler	Y	김민지, 최관, 박광배
55	철학/심리학/윤리학	일의 심리학	주식회사 피와이메이트	Saba Rasheed Ali 외 26인	Y	박정민, 김태선, 신주연, 남지혜
56	철학/심리학/윤리학	자유란 무엇인가 : 헤겔 법철학과 현대	도서출판 길	클라우스 피베크	Y	정대성
57	철학/심리학/윤리학	전문가를 위한 한국형 심리부검	주식회사 피와이메이트	서중환, 육성필, 조윤정, 홍현기, 김경일	N	
58	철학/심리학/윤리학	주자학에서 실학으로	고려대학교출판부	김용헌	N	
59	철학/심리학/윤리학	중독상담학 개론 :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총서(14)	(주)학지사	신성만 외 16인	N	
60	철학/심리학/윤리학	칸트와 종교	세창출판사	김진	N	
61	철학/심리학/윤리학	코칭심리학	(주)학지사	탁진국	N	
62	철학/심리학/윤리학	파이데이아(1) : 희랍적 인간의 조형	아카넷	베르너 예거	Y	김남우
63	철학/심리학/윤리학	플라톤의 법률(1-2)	(주)나남	플라톤	Y	김남두 외 5인
64	철학/심리학/윤리학	한국 칸트사전	아카넷	백종현	N	
65	철학/심리학/윤리학	한국의 유학과 의학	심산출판사	성호준	N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66	철학/심리학/윤리학	헤겔과 그 적들	사월의책	남기호	N	
67	종교	3.1운동 백주년과 한국 종교개혁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박병기 외 9인	N	
68	종교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새물결플러스	김정훈	N	
69	종교	균형의 마음, 우뻛카	도서출판 운주사, 너울북	박재은	N	
70	종교	그리스도론의 역사 : 고대 교부에서 현대 신학자까지	대한기독교서회	김동건	N	
71	종교	근대한국 개벽사상을 실천하다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허남진 외 11인	N	
72	종교	대승 보살계의 사상과 실천	박문사	양정연	N	
73	종교	도교백과	(주)파라박스	사카데 요시노부	Y	이봉호, 최수빈, 박용철
74	종교	불교의 기원	민족사	고빈드 찬드라 판데	Y	정준영
75	종교	上座 슈리라타의 經量部 사상	도서출판 씨아이알	권오민	N	
76	종교	세친의 극미론 : 극미해석을 통해 본 세친 철학의 전이	도서출판 씨아이알	이규완	N	
77	종교	우상과 신앙 : 종교적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	한울엠플러스주식회사	정재현	N	
78	종교	조르주 뒤메질, 인도-유럽 신화의 비교 연구	(주)민음사	김현자	N	
79	종교	초기 교회의 기원(1-2)	새물결플러스	제임스 D. G. 던	Y	문현인
80	종교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이진구	N	
81	종교	현대 한국의 종교시장정책론	다산출판사	유광석	N	
82	사회과학	21세기 예술경영 : 예술과 관객의 통합	(주)도서출판한울출판사	ELLEN ROSEWALL	Y	박신의 외 6인
83	사회과학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	교육과학사	정창우	N	
84	사회과학	SRV 이론과 프로그램 평가도구로서 Passing	도서출판 공동체	김동국	N	
85	사회과학	SSI 교육이란 무엇인가 : 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에 대한 사회참여와 실천을 위한 교육	주식회사 피와이메이트	이현주	N	
86	사회과학	가족과 통치 :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주)창비	조은주	N	
87	사회과학	감정노동, 그 이름의 함정	도서출판 푸른사상사	김현아	N	
88	사회과학	계량적 사고와 의사결정과학	인천대학교출판부	김창희	N	
89	사회과학	고개만당에서 하늘을 보다	한그루	고광민	N	
90	사회과학	公私관으로 본 일본 교육 이데올로기	제이앤씨	김경옥	N	
91	사회과학	공교육, 위기와 도전	맘에드림	김인호	N	
92	사회과학	광고PR 실무를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도서출판 한경사	김유미 외 11인	N	
93	사회과학	교사를 위한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천	주식회사 피와이메이트	장연주	N	
94	사회과학	교육은 어떻게 사회를 지배하는가 : 교육중심사회의 탄생과 미래	주식회사 피와이메이트	데이비드 베이커	Y	장덕호, 김혜림, 변수용, 전하람, 최승복
95	사회과학	교육이 창조한 세계 : 학습활동에서 교육체계로의 진화	교육과학사	한승희	N	
96	사회과학	교차성 x 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한우리, 김보명, 나영, 황주영	N	
97	사회과학	국가경제의 흥망성쇠	문우사	이지순	N	
98	사회과학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산지니	노용석	N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99	사회과학	금융과 회사의 본질 :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중교배	도서출판 개마고원	김종철	N	
100	사회과학	기술사업화 실무	홍릉과학출판사	박명일, 배종성, 이철흙	N	
101	사회과학	기업의 시대를 읽는 새로운 경영학	도서출판 시대가치	김용민 외 7인	N	
102	사회과학	나는 스포츠로 창업을 꿈꾼다	(주)국일출판사	윤거일, 양은희	N	
103	사회과학	노년학	도서출판 신정	한경혜, 최혜경, 안정신, 김주현	N	
104	사회과학	노동야학, 해방의 밤을 꿈꾸다 : 노동과 학습은 어떻게 만나는가	도서출판 따비	김한수	N	
105	사회과학	노동자가 원하는 것 : 공존을 위한 설문 보고서	후마니타스	리처드 프리먼, 조엘 로저스	Y	이동한
106	사회과학	논쟁 수업으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도서출판 풀빛	넬 나딩스, 로리 브룩스	Y	정창우, 김윤경
107	사회과학	농업이 미래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김성수	N	
108	사회과학	뇌는 수학을 어떻게 배우는가?	신한출판미디어	David A. Sousa	Y	신재한, 박기범, 백종훈
109	사회과학	다문화 교육과 정책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박승우	N	
110	사회과학	다문화 사회의 다층성 :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정책적 편입과 배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원숙연	N	
111	사회과학	다인종 다문화 상상과 페미니스트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태혜숙	N	
112	사회과학	대학 교육 필수화와 보편화의 함정 : 대졸 청년 실업과 하향취업의 역설	(주)학지사	오욱환	N	
113	사회과학	대학생을 위한 과학기술창업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경환	N	
114	사회과학	디지털 미디어와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희은 외 10인	N	
115	사회과학	러시아 외교정책의 이해	역사공간	고재남	N	
116	사회과학	로마법의 향연	도서출판 길	최병조	N	
117	사회과학	리눅스에서 R과 하둡을 이용한 빅데이터 처리 분석	자유아카데미	임동훈	N	
118	사회과학	리시아스와 안티스테네스 : 소크라테스 추종의 행동 및 사유와 희랍 정치철학의 발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양승태	N	
119	사회과학	리씽킹 이코노믹스 : 다원주의 경제학 입문 최전선의 경제학들	도서출판 개마고원	앵겔베르트 스톡하머 외 11인	Y	한성안
120	사회과학	마케팅관리 : 디지털시대의 뉴 마케팅	피앤씨미디어	최은정	N	
121	사회과학	면세점 & 국제시장	도서출판 청람	김기홍	N	
122	사회과학	무역협상실무	삼영사	신군재	N	
123	사회과학	문화공학	고려대학교출판부	클로드 몰라르	Y	정장진
124	사회과학	미국 의회정치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전형인가? : 정당정치에 포획된 미국의회	도서출판 오름	손병권	N	
125	사회과학	미술감상 : 중층적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의 구축	교육과학사	류지영	N	
126	사회과학	민족주의들	이매진	전재호	N	
127	사회과학	바이마르의 세기 : 독일 망명자들과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회화나무	우디 그린버그	Y	이재욱
128	사회과학	방송법연구	법문사	권오상 외 10인	N	
129	사회과학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 법적 추론 입문	도서출판 길	프레데릭 샤워	Y	김건우
130	사회과학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문사	윤진수 외 32인	N	
131	사회과학	베이지안 통계학의 이론·계산 및 응용	자유아카데미	정윤식	N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132	사회과학	비판법학운동 :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과업	도서출판 엘피	로베르토 응거	Y	이재승
133	사회과학	비판적 실천을 위한 교육학	도서출판 살림터	이윤미 외 7인	N	
134	사회과학	빅데이터와 데이터 과학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금술	자유아카데미	박성현, 박태성, 이영조	N	
135	사회과학	빈곤자본 : 소액금융과 개발의 패러다임	도서출판 여문책	아나냐 로이	Y	김병순
136	사회과학	사회복지법연구	경인문화사	전광석 외 21인	N	
137	사회과학	사회의정치	이론출판사	니클라스 루만	Y	서영조
138	사회과학	사회적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	(주)박영사	이정환	N	
139	사회과학	산림공유자원관리로서 금승계 연구	(주)집문당	배수호, 이명석	N	
140	사회과학	생각 중심 교육	(주)집문당	박주용	N	
141	사회과학	세계화 시대의 국가무역환경	도서출판 탐복스	이기환	N	
142	사회과학	스포츠 외교의 신화	(주)박영사	정기웅	N	
143	사회과학	승리의 솔루션 : 9가지 전쟁사례로 살펴본 승리방식	북코리아 출판사	김규빈 외 8인	N	
144	사회과학	시민종교의 탄생 : 식민성과 전쟁의 상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강인철	N	
145	사회과학	식품유통론	학현사	김동환	N	
146	사회과학	신 구조경제학 : 경제 발전과 정책을 재고한 이론 틀	도서출판 학고방	린이푸	Y	장홍영
147	사회과학	신경과학과 교육	(주)도서출판 하우	Clarence W. Joldersma 외 14인	Y	추병완 외 5인
148	사회과학	아이들, 색을 칠하다 : 영유아 색채 활동	도서출판 정민사	유연화, 박수현, 서정연	N	
149	사회과학	아틀라스의 발 : 포스트식민 상황에서 부르디외 읽기	(주)문학과지성사	이상길	N	
150	사회과학	어린이 도덕교육의 새로운 관점 : 덕 윤리적 접근을 통한 인격 계발	도서출판 울력	토니 이우드	Y	송영민, 박형빈
151	사회과학	에라스무스 교육방법론	도서출판 인간사랑	에라스무스	Y	김성훈
152	사회과학	에밀 뒤르케임 : 사회실재론	도서출판 길	김덕영	N	
153	사회과학	역사는 스스로 길을 찾는다 : 로자 룩셈부르크 100주기를 맞으며	도서출판 박종철출판사	이갑영	N	
154	사회과학	영유아발달	동문사	김경철, 김은혜, 정혜승	N	
155	사회과학	영화 로그인 : 사고와 표현 교육	한국학술정보	황영미 외 15인	N	
156	사회과학	예술교육의 다문화 실천 담론	교육과학사	정옥희	N	
157	사회과학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명인문화사	전우택 외 7인	N	
158	사회과학	위안부문제와 미래에 대한 책임 : 한일'합의'에 대항하여	민속원	김부자 외 17인	Y	김창록, 이재수
159	사회과학	유엔과 인권규범의 형성	(주)나남	정진성	N	
160	사회과학	이문화관리	한티미디어	Richard M Steers, Luciana Nardon, Carlos J. Sanchez-Runde	Y	김응규, 김태중, 박재석, 안성익
161	사회과학	인권의 창, 헌법의 길 :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경인문화사	이우영 외 15인	N	
162	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도서출판 윤성사	이석민	N	
163	사회과학	인물로 읽는 현대한국정치사상의 흐름	아카넷	강정인 외 9인	N	
164	사회과학	인성교육의 담론 : 미래세대를 위한 지혜교육 탐색	(주)학지사	김영래	N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165	사회과학	인적자원개발론 : 인재육성을 위한 HRD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한경사	Jon M.Werner	Y	차중석, 류종현, 류충렬, 박형근
166	사회과학	일본을 알아야 한일관계가 보인다 : 지역학적 한일관계시론	제이앤씨	이상훈	N	
167	사회과학	일을 되찾자 : 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나름북스	장훈교	N	
168	사회과학	잊혀진 조선피로인 : 일본 나에시로가와 조선인 사회의 명암	민속원	김정호	N	
169	사회과학	자연테마파크	학현사	김희진, 안태기	N	
170	사회과학	작은 학교가 희망이다	도서출판 기억(나무늘보, 책마을해리)	이동성	N	
171	사회과학	재난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도서출판 공동체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플러스 재난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단(박병현 외 18인)	N	
172	사회과학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진성	N	
173	사회과학	정서와 학습 그리고 뇌 : 아이는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배우는가	바수데바	메리 헬렌 이모디노-양	Y	황매향
174	사회과학	정의의 아이디어	(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아마르티아 센	Y	이규원
175	사회과학	조선왕조의 빈곤정책 : 중국, 일본과 어떻게 달랐나	도서출판 문사철	박광준	N	
176	사회과학	조종이 울린다 : 자본주의라는 난파선에 관하여	도서출판 여문책	볼프강 슈트렉	Y	유강은
177	사회과학	죽음과 내셔널리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영진	N	
178	사회과학	지식의 장, 학문의 제도화 : 한국 언론학의 정체성 탐색	컬처룩	임영호	N	
179	사회과학	직장에서의 괴롭힘 : 법적 쟁점과 과제	신조사	이준희	N	
180	사회과학	참여형 공공갈등관리의 이해	(주)박영사	김정인	N	
181	사회과학	창의성, 글과 그림으로 풀다	동문사	윤길근, 박형근	N	
182	사회과학	청소년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주)박이정출판사	선주원	N	
183	사회과학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문우사	문명재	N	
184	사회과학	촛불집회와 대중운동	한국학술정보	장우영 외 8인	N	
185	사회과학	콩도르세, 공교육에 관한 다섯 논문	도서출판 살림터	니콜라 드 콩도르세	Y	이주환
186	사회과학	텍스트, 상황 맥락, 숨겨진 의도 : 담화 분석에서 몇 가지 핵심 논제	도서출판 경진	헨리 G. 위도슨	Y	김지홍
187	사회과학	통화정책론	윙곡출판사	문우식	N	
188	사회과학	트라우마와 사회치유 : 북아일랜드와 캄보디아에서 배우다	(주)역사비평사	박명림 외 6인	N	
189	사회과학	특허 빅데이터 DNA : Data, Network, Analytics&AI	끌리는책	김지은, 정부용, 김대중	N	
190	사회과학	페미니스트 법이론의 전개	세창출판사	윤진숙 외 14인	N	
191	사회과학	핀란드의 의회, 시민, 민주주의 : 열린, 포용적 의회-시민 관계를 향하여	빈빈책방주식회사	서현수	N	
192	사회과학	하브루타 수업 디자인	맘에드림	김보연, 고요나, 신명	N	
193	사회과학	학교자율운영 2.0	도서출판 살림터	김용	N	
194	사회과학	한국 교육 제 4의 길을 찾다	도서출판 살림터	이길상	N	
195	사회과학	한국 문화론	(주)박이정출판사	황병순	N	
196	사회과학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한울엠플러스주식회사	김동택 외 8인	N	
197	사회과학	한국 산업의 미래 전략	윙곡출판사	카이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덕희 외 12인)	N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198	사회과학	한국 예로 비디오의 사회사 : 애마부인에서 소라넷까지	컬처룩	임영호, 김은진, 홍찬이	N	
199	사회과학	한국 잡녀, 해녀의 역사와 문화	도서출판 역락	안미정	N	
200	사회과학	한국 제4차 산업혁명 연구	임마누엘인쇄출판사	이찬구 외 5인	N	
201	사회과학	한국민요현장과 경계넘기	민속원	권오경	N	
202	사회과학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	(주)박영사	정인섭	N	
203	사회과학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 아이디어와 제도, 그리고 다양한 지방분권	문우사	배유일	N	
204	사회과학	한국인의 평화사상(2)	도서출판 인간사랑	이찬수 외 11인	N	
205	사회과학	한국정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선거 분석	(주)나남	강원택 외 14인	N	
206	사회과학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	백산서당	조성렬	N	
207	사회과학	한반도의 분단, 평화, 통일 그리고 민족	도서출판 씨아이알	사회와 철학 연구회(권용혁 외 8인)	N	
208	사회과학	해양인문학이란 무엇인가?(1-2)	한국학술정보	부경대학교 인문학연구소(CORE)사업단(남송우 외 16인)	N	
209	사회과학	행복과 사회	고려대학교출판부	박승민	N	
210	사회과학	형사증거법 뼈때리게 보기	준커뮤니케이션즈	김정환	N	
211	사회과학	호남 세습무 집단의 문화 영토 : 무속·전통예술·동학혁명·근대종교	민속원	이영금	N	
212	순수과학	나우 : 시간의 물리학	(주) 바다출판사	리처드 A. 물러	Y	강형구, 장중훈
213	순수과학	무한 : 수학적 상상	매디디자인	신현용, 신기철	N	
214	순수과학	빙하여 잘 있거라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피터 와담스	Y	이준호
215	순수과학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다 : 삶의 지혜와 변화를 주는 수학	교문사	양영오	N	
216	순수과학	어떻게 뇌를 고칠 것인가 : 알츠하이머 병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주식회사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N	
217	순수과학	어쩐지 미술에서 뇌과학이 보인다 : 환원주의의 매혹과 두 문화의 만남	프시케의숲	에릭 캔델	Y	이한음
218	순수과학	에너지 상식사전	MID 엠아이디	이찬복	N	
219	순수과학	오일러의 보석	(주)교우	David S. Richeson	Y	최수영, 고희경
220	순수과학	유전체, 다가온 미래 의학 : 알기 쉽게 풀어쓴 정밀의학 이야기	메디게이트뉴스	김경철	N	
221	순수과학	유행, 신조 그리고 공상	도서출판 승산	로저 펜로즈	Y	노태복
222	순수과학	자연의 소통기술	자유아카데미	윤용진	N	
223	순수과학	진화와 인간 행동	에이도스	존 카트라이트	Y	박한선
224	순수과학	호모 무지쿠스는 뇌로 음악을 듣는다	경북대학교출판부	구자현	N	
225	기술과학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설계한다	교문사	대한산업공학회(정봉주 외 10인)	N	
226	기술과학	Advanced topics in LED technology	GIST PRESS	박성주 외 8인	N	
227	기술과학	HAPPY! 소아청소년 진료	우리의학서적	KASAI MASASHI, KODAMA KAZUHIKO, KAMIMURA KATSUNORI	Y	안지현, 임인석
228	기술과학	MEDIA MAKEUP : NCS 집필진	주식회사 지구문화	윤예령, 강지연, 이선주, 임희경, 최정아	N	
229	기술과학	R을 이용한 공정제어기초	도서출판 동화기술	도진환	N	
230	기술과학	거동장애증후군 : 골다공증 매뉴얼	주)에스앤씨퍼블리싱	임승길 외 29인	N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231	기술과학	건강100세 장수식품 이야기	도서출판 식안연	박상철 외 7인	N	
232	기술과학	건설 클레임의 실무적 이해	주식회사 바른복스	정영모	N	
233	기술과학	건축의 공간 개념	도서출판 씨아이알	코르넬리스 판 드 벤	Y	고성룡
234	기술과학	고급영양학 : 플러스	도서출판 파워북	현태선, 한성림, 김혜경, 권영혜, 정자용	N	
235	기술과학	고령자를 위한 영양관리와 식사케어	도서출판 창지사	신원선, 박수진, 김돈규	N	
236	기술과학	골이형성증과 기형증후군의 영상진단	여문각	김옥화, 니시무라 겐, 조태준	N	
237	기술과학	공학, 철학, 법학의 눈으로 본 인간과 인공지능	도서출판 씨아이알	조승호, 신인섭, 유주선	N	
238	기술과학	공학설계와 의사소통	학산미디어	권성규	N	
239	기술과학	기계학습 : 수학적 이해에서 알고리즘까지	홍릉과학출판사	오상훈	N	
240	기술과학	나도 당뇨병 전문가	주)에스앤씨퍼블리싱	김영설	N	
241	기술과학	낸시 크리거의 역학 이론과 맥락	한울엠플러스주식회사	낸시 크리거	Y	신영전 외 5인
242	기술과학	농장에서 식탁까지 : 신선 과채류편	세이프웨이	정덕화, 박정면	N	
243	기술과학	도시를 건축하는 조경	(주)환경과조경	박명권	N	
244	기술과학	동력기계 신뢰성 공학실무	홍릉과학출판사	이민희	N	
245	기술과학	디자인 사고와 감각을 일깨우는 디자인 수업	교문사	황정혜, 오상은, 석금주, 박가미	N	
246	기술과학	땅과 문명의 어울림, 지반공학	도서출판 씨아이알	한국지반공학회 '땅과 문명의 어울림, 지반공학' 출판위원회(정상성 외 32인)	N	
247	기술과학	라돈, 불편한 진실	도서출판 동화기술	조승연	N	
248	기술과학	말과학 : 말소리의 생리학, 음향학, 지각	도서출판박학사	Lawrence J. Raphael, Gloria J. Borden, Katherine S. Harris	Y	이은경, 김재욱, 표화영, 허명진, 홍승희
249	기술과학	문헌에 따른 근대통신(우체·전신·전화)역사	진한엠앤비	이봉재	N	
250	기술과학	바로 쓰는 파이썬 : 기초 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진수	N	
251	기술과학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관리 전략	신일서적 (주)	가와니시 도루, 가와사키 나나	Y	오승호
252	기술과학	반려동물의 통증과 행동 : 반려동물에서 나타나는 통증과 관련된 행동학적 변화	(주)범문에듀케이션	토마스 캄프스 모레이, 마르타 아마트 그라우	Y	연성찬
253	기술과학	비만과의 전쟁	도서출판 식안연	이철호	N	
254	기술과학	사람중심 치매케어	학지사메디컬	Dawn Brooker, Isabelle Latham	Y	공은희 외 5인
255	기술과학	생물공학의 기초	수학사	서진호 외 9인	N	
256	기술과학	스크래치주니어로 시작하는 우리 아이 첫 코딩 with QR코드	도서출판 광문각	김경철, 이성주, 오아름	N	
257	기술과학	식품의 감각평가와 기호적 품질관리	수학사	노봉수 외 7인	N	
258	기술과학	신경심리재활과 치매환자	(주)학지사	Linda Clare	Y	인지중재치료학회(김성윤 외 12인)
259	기술과학	실내환경학개론	도서출판 동화기술	한국실내환경학회(김윤신 외 13인)	N	
260	기술과학	실무를 위한 식품포장공학	수학사	박현진 외 10인	N	
261	기술과학	실천 중심 간호리더십	학지사메디컬	장금성 외 8인	N	
262	기술과학	심리학의 군사적 활용	교문사	김용주, 강성록	N	
263	기술과학	안면신경	세종의학	대한이과학회	N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264	기술과학	안전관리론	교문사	정진우	N	
265	기술과학	어렵지만 쉽게 접근하는 치과심신의학	대한나래출판사	토요후쿠 아키라, 요시카와 타츠야	Y	신영민
266	기술과학	에너지인터넷 시스템	홍릉과학출판사	이흥재 외 6인	N	
267	기술과학	에센스 인체해부학	주식회사 지구문화	윤범철 외 7인	N	
268	기술과학	요셉의 지혜 : 한반도 식량비축 계획	도서출판 식안연	이철호, 위남량, 최지현, 임정빈, 안병일	N	
269	기술과학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가까이 보기	(주)집문당	송진호 외 8인	N	
270	기술과학	웰니스 워크북 : 건강과 생명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학지사메디컬	John W. Travis, Regina Sara Ryan	Y	이인숙, 김성재, 방경숙
271	기술과학	이해하기 쉬운 건강기능식품	도서출판 파워북	박희정 외 5인	N	
272	기술과학	인문테크놀로지 입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김동성, 신상규, 천현득	N	
273	기술과학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대로 알고 확실히 예방하는 소화기암	주)에스앤씨퍼블리싱	대한소화기암학회 암예방연구회	N	
274	기술과학	임상소장학	주)에스앤씨퍼블리싱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캡슐 소장내시경연구회 (임윤정 외 65인)	N	
275	기술과학	자동차 전기전자 공학	한티미디어	James D. Halderman	Y	이충규, 최현식
276	기술과학	자동차 차세대 엔진공학	도서출판 동명사	김철수, 이원섭	N	
277	기술과학	재현 분열 시대의 건축 : 생산의 그늘 아래 창조성의 문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달리보 베즐리	Y	서정일
278	기술과학	전기자동차	(주)골든벨	강주원, 이진구	N	
279	기술과학	전신질환자는 이렇게 진료한다 : 치과 체어 사이드 매뉴얼	군자출판사	와다 다케시	Y	서봉직
280	기술과학	정밀공학	도서출판 씨아이알	리처드 리치, 스투어트 스미스	Y	장인배
281	기술과학	제민요술 역주(1-5)	세창출판사	가사협	Y	최덕경
282	기술과학	중환자실 의료윤리 : 의료인이 알아야 할 중환자실 윤리 딜레마	군자출판사	Dan R. Thompson, MD, MA, FCCM, David Kaufman	Y	대한중환자의학회
283	기술과학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복원공학 : 자연재생과 녹화이론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보문당	김남춘, 이태욱, 전기성, 허영진, 김경훈	N	
284	기술과학	치과임상윤리 : 전문직업인 의무와 실무 적용	명문출판사	데이빗 T. 오자르, 데이빗 J. 소콜, 도널드 E. 페트호프	Y	노동래, 이철규
285	기술과학	치매의 모든 것	(주)범문에듀케이션	최낙원	N	
286	기술과학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활용	도서출판 한미의학	Jacqueline Filshie, Adrian White, Mike Cummings	Y	강중원 외 6인
287	기술과학	텐서플로와 머신러닝으로 시작하는 자연어 처리 : 로지스틱 회귀부터 트랜스포머 챗봇까지	위키아카데미	전창욱, 최태균, 조중현	N	
288	기술과학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코딩 :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 보자!	타임교육	브라이언 칼링, 말리아데어	Y	민지현
289	기술과학	풍류의 류경, 공원의 평양	효형출판	이선	N	
290	기술과학	한국 원자력발전 사회기술체제 : 기술, 제도, 사회운동의 공동구성	한울엠플러스주식회사	홍덕화	N	
291	기술과학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주)박영사	전우택 외 21인	N	
292	기술과학	항공전기전자	(주)성안당	이상중	N	
293	기술과학	항생제 열전	군자출판사	유진홍	N	
294	기술과학	호스피스·완화의료	군자출판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N	
295	기술과학	환자를 볼까, 검사를 볼까? : 임상추론의 ABC	(주)범문에듀케이션	Nicola Cooper, John Frain	Y	윤병우
296	기술과학	활기찬 도심 만들기 : 도시설계와 재생의 원칙	도서출판대가	사이 포미어	Y	장지인, 여혜진, 김광중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297	예술	게임의 이론 : 놀이에서 디지털게임까지	문화과학사	이동연 외 11인	N	
298	예술	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하지 않는가 : 음악의 연주·분석·작품의 해석	음악세계	스티븐 데이비스 외 17인	Y	음악미학연구회
299	예술	그런 음악 무슨 생각? : 초기 양악 작곡가들의 음악관	세종출판사	홍정수	N	
300	예술	극장의 역사 : 건축과 연극의 사회문화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임석재	N	
301	예술	근대 조선춤의 지속과 변용	소명출판	이정노	N	
302	예술	눈물과 정치	도서출판 따비	이호걸	N	
303	예술	니체, 철학 예술 연극	도서출판 푸른사상사	심재민	N	
304	예술	담론과 이미지로 본 현오양처의 탄생	도서출판 역락	이성례	N	
305	예술	대중가요, 역사로 읽기 : 이주와 이산의 노래	서강대학교 출판부	허부문	N	
306	예술	도시의 시학 : 장소의 기억과 징후	심산출판사	다나카 준	Y	나승희, 박수경
307	예술	만한합벽 서상기(1)	박문사	김성탄, 왕실보	Y	최동권, 김유범, 최혜빈, 고경재
308	예술	바우하우스	(주)안그래픽스	김종균 외 17인	N	
309	예술	소비문화와 이국취미의 색채	경춘사	이금희	N	
310	예술	영화 속 통일인문학 : 대중문화로 본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	씽크스마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N	
311	예술	지금까지의 사진 : 한국사진의 작은 역사 1945~2018	도서출판 눈빛	이규상	N	
312	예술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	도서출판 지성사	배연형	N	
313	예술	한국 현대미술의 정체	(주)도서출판 한길사	윤난지	N	
314	예술	해석과 착상 : 이관직의 건축설계 가의	정예씨 출판사	이관직	N	
315	예술	호모 서커스	광대와바다	허정주	N	
316	예술	희극 : 프랑스 희극의 역사	도서출판 연극과인간	피에르 볼츠	Y	희극연구회
317	언어	광흥사 월인석보 권7·권8	도서출판 경진	서보월, 천명희	N	
318	언어	광흥사 초간본 월인석보 권21	도서출판 경진	천명희	N	
319	언어	대조분석과 중국어교육	차이나리뷰	진준광	Y	김현철, 신수영, 이육주, 전기정
320	언어	삶의 스펙트럼으로서의 팝송 그리고 영어	도서출판 영	서용득	N	
321	언어	언문 : 1443년 12월 임금이 친히 언문 스물여덟 자를 만들다	이회문화사	홍현보	N	
322	언어	언어의 아이들 :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언어를 배울까?	사이언스북스	조지은, 송지은	N	
323	언어	영어 언어 교육론 : 원리와 적용	한빛문화	김낙복	N	
324	언어	영어교육 연구방법과 SPSS를 활용한 통계 분석	신아사	정양수	N	
325	언어	일본 천자문 훈점본의 해독과 번역 : 동경대학 국어연구실 소장『주천자문』을 대상으로	박문사	오미영	N	
326	언어	죽간에 반영된 노자의 언어 : 관점본의 언어문자학적 재조명과 후대의 변화 양상	피비프레스(PB Press)	조은정	N	
327	언어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임지룡	N	
328	언어	한국어 표준 문법	(주)집문당	유현경 외 9인	N	
329	언어	한문 해석 공식 : 촌스키가 논어를 읽는다면	한티미디어	김중호	N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330	언어	한자의 구조와 그 문화적 함의	영남대학교출판부	劉興均	Y	최환 외 5인
331	언어	환유와 인지 :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한국문화사	김동환	N	
332	문학	관서악부 : 평안감사가 보낸 평양에서의 1년	아카넷	신광수	Y	이은주
333	문학	대결의 문학사	도서출판 역락	정호웅	N	
334	문학	들, 영원을 기록하다 : 고대 중국인의 삶과 죽음	경북대학교출판부	홍승현, 양진성, 소현 숙	N	
335	문학	동국명현유목	학자원	박상수	N	
336	문학	만문본 어제피서산장시	박문사	작자 미상	Y	최동권, 김유범, 신상현, 이효윤
337	문학	모순의 힘 :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	경북대학교출판부	정우락	N	
338	문학	박문수, 구건과 기록 사이	채륜	김명옥	N	
339	문학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 1945-1969 : 냉전 지의 형성과 저항담 론의 재구축	소명출판	박지영	N	
340	문학	비극문학 : 서양문학에 나타난 비극적 비전	(주)지식산업사	채수환	N	
341	문학	산해경과 한국 문화	(주)민음사	정재서	N	
342	문학	삶을 위한 죽음의 미학	김영사	이창복	N	
343	문학	석견루시초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복현	Y	안대회, 조창록, 이성 민, 김채식, 이상아
344	문학	성찰(省察)의 서(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우사마 이븐 문끼드	Y	김능우
345	문학	순결과 음란 : 에로티시즘의 작동 방식	도서출판 지식과교양	대중서사장르연구회	N	
346	문학	숨겨진 미래 : 탈냉전 상상의 계보(1945~1972)	도서출판 푸른역사	장세진	N	
347	문학	스페인 아방가르드와 바로크적 전통	고려대학교출판부	조민현	N	
348	문학	시대, 작가, 젠더 : 한국 여성작가의 기억과 초상(1)	태학사	이화어문학회 편	N	
349	문학	식민지 문역 : 검열, 이중출판시장, 피식민자의 문장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한기형	N	
350	문학	식민지 한자권과 한국의 문자 교체 : 국한문 독본과 총독부 조선어급 한문독본 비교 연구	소명출판	임상석	N	
351	문학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작품 연구	제이앤씨	하태후	N	
352	문학	육망의 섬, 비통의 언어	한그루	김동현	N	
353	문학	최인훈 : 오디세우스의 항해	(주)한연	방민호 외 23인	N	
354	문학	탈북 문학의 도전과 실험	도서출판 역락	방민호 외 8인	N	
355	문학	특이성의 문학과 제3의 시간 : 현대문학에서의 시간의 문제	(주)문예출판사	나병철	N	
356	문학	틈새비평 : 버지니아 울프 연구의 빈 곳을 찾아서	(사)전남대학교출판문 화원	이주리, 김부성	N	
357	문학	포스트미메시스 문학 이론-루카치에서 들뢰즈까지	그물코	오길영	N	
358	문학	한국 고소설 강의	주식회사 돌베개	한국고소설학회	N	
359	문학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주식회사 돌베개	이강욱	N	
360	문학	한국 현대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일조각	김경수	N	
361	문학	해방기 문학과 주권인민의 정치성	소명출판	이행선	N	
362	문학	해석의 에움길 : 폴 리퀴르의 해석학과 문학	(주)문학과지성사	김한식	N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363	문학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 고전소설의 근대적 변개와 콘텐츠	소명출판	권순궁	N	
364	문학	현대시와 추의 미학	보고사	엄경희	N	
365	문학	홍콩문학론 : 홍콩 상상과 방식	도서출판 학고방	김혜준	N	
366	역사/지리/관광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주류성출판사	김세기 외 7인	N	
367	역사/지리/관광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주)지식산업사	노명호	N	
368	역사/지리/관광	고려의 국제적 개방성과 자기인식의 토대	도서출판해안	채웅석 외 8인	N	
369	역사/지리/관광	관광경영정보시스템과 e-Business	이프레스	박상현, 문승일, 서민정	N	
370	역사/지리/관광	관광도 기술이다 : 관광 입문 필독서	일조각	엄서호	N	
371	역사/지리/관광	교황 칼릭스투스의 『산티아고 순례 안내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칼릭스투스 2세	Y	박용진
372	역사/지리/관광	근대 장애인사	사우	정창권	N	
373	역사/지리/관광	글로벌 사회정의를 위한 개발지리와 개발교육	(주)푸른길	조철기	N	
374	역사/지리/관광	기업가와 박애 : 기업가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가	영남대학교출판부	이정희 외 7인	N	
375	역사/지리/관광	도시 아틀라스	(주)푸른길	폴 녹스	Y	손정렬, 박경환, 지상현
376	역사/지리/관광	동독민 이주사 1949~1989	서해문집	최승완	N	
377	역사/지리/관광	동아시아 엑스포의 역사 : 메가 이벤트의 감성공학	산지니	하세봉	N	
378	역사/지리/관광	방선주 저작집(1-3)	도서출판 선인	방선주	N	
379	역사/지리/관광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허태구	N	
380	역사/지리/관광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도서출판 선인	기광서	N	
381	역사/지리/관광	사치의 제국	주식회사 글항아리	우련수	Y	김의정, 정민경, 정유선, 최수경
382	역사/지리/관광	세균의 복음 : 1870~1930년 미국 공중보건의 역사	도서출판 푸른역사	낸시 톰스	Y	이춘입
383	역사/지리/관광	송대 사법 속의 검시 문화	세창출판사	최해별	N	
384	역사/지리/관광	수증고고학의 역사	한국학술정보	김도현	N	
385	역사/지리/관광	시민교육을 위한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천	도서출판 책과함께	김한중 외 9인	N	
386	역사/지리/관광	신라 왕경 형성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이동주	N	
387	역사/지리/관광	여행기의 인문학	(주)푸른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N	
388	역사/지리/관광	영남의 3·1운동과 만주의 꿈	경북대학교출판부	이윤갑 외 6인	N	
389	역사/지리/관광	영산강유역 마한문화 재조명	학연문화사	이정규 외 5인	N	
390	역사/지리/관광	원간섭기 고려의 측근정치와 개혁정치	경인문화사	김광철	N	
391	역사/지리/관광	원폭 피해 한국 여성들	도서출판 푸른사상사	김경애	N	
392	역사/지리/관광	이역을 상상하다	그물	거자오광	Y	이연승
393	역사/지리/관광	제국의 기억, 제국의 유산	아카넷	이영석	N	
394	역사/지리/관광	조선 무인의 역사, 1600~1894년	도서출판 푸른역사	유진 Y. 박	Y	유현재
395	역사/지리/관광	조선연행사와 조선통신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후마 스스무	Y	신로사 외 8인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396	역사/지리/관광	조선전기 대외무역과 화폐 연구	(주)지식산업사	박평식	N	
397	역사/지리/관광	증오하는 인간의 탄생	(주)역사비평사	나인호	N	
398	역사/지리/관광	토지소유의 장기변동 : 경기도 시흥 석장둔의 250년 역사	경인문화사	이영호	N	
399	역사/지리/관광	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	고려대학교출판부	송규진	N	
400	역사/지리/관광	화서학파 인물들의 독립운동	역사공간	박민영	N	